조선대 1천억 적립금,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임시이사’ 20년간 재정탄탄 전국 16위

미래위한 투자엔 손 묶여…정이사 시급

조선대학교의 적립금이 1천억원에 가까워 전국 190개 사립대 가운데 16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발표한 ‘2008년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조선대의 누적 적립금은 총 997억1천만원으로 전국 사립대 가운데 16위이다.

특히 적립금 가운데 장학적립금비율은 31.1%로 전국 상위 20개교 평균 7.7%의 네 배를 넘는 수치로, 1위를 차지했다. 장학적립금은 330억원으로 액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화여대(626억원), 연세대(538억원)에 이어 3위에 올라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이 어느 대학보다 풍부함을 입증했다.

적립금이 1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대학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 때문에 조선대는 지난 20년간의 임시이사 체제에서도 전 구성원이 노력해 대학 발전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적립금이 늘어난 것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고민이 있다.

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이나 글로벌 인재양성, 학생 후생 복지 등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대는 지난 2005년 이후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 아래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태양열 홍보관 건립, 국제교류센터(110억원 소요 예상), 사회대 건립(50억원), 지하 학생 및 교직원식당(50억원), 제2기숙사(200억원) 등 총 4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을 계획·진행했으나 어느 것 하나 매끄럽게 추진된 것이 없다.

이들 계획은 예산이 대량 투입되는 사업인 까닭에 임시이사회가 정이사 도입 이후 추진할 것을 권유하며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다.

조선대의 적립금은 옛 경영진인 박철웅 총장시절 1987년 171억원에서 1988년 학내민주화운동 으로 옛 경영진 퇴진 이후 점차 증가, 1990년 272억원→1993년 455억원→1997년 578억원→1998년 801억원 이후 1999년 1천8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적립금은 2002년 867억원, 2004년 716억원까지 줄어들었다가 2005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 1천억을 또다시 눈앞에 두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적립금이 천억원에 달해 학교 운영이 투명하고 건전하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점에서는 뿌듯하다”면서 “하지만 예산이 있음에도 학교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임시이사회 한계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누적적립금이 제일 많은 사립대학은 이화여대로 5천442억원이었고, 다음으로 홍익대 4천294억원, 연세대 3천200억원, 동덕여대 2천232억원, 수원대 2천27억원 등의 순이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t 세종대왕像 광화문 이송 채비 오는 9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개되는 세종대왕상이 5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조형물 전문제작업체 공간미술의 작업장에서 서울로의 이송을 위해 랩 등 보호장비를 두르고 있다. 높이 6.2m에 폭 4.3m, 무게 20t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세종대왕 동상은 이날 자정부터 6일 오전까지 4시간에 걸쳐 서울로 운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세계무형유산 된 강강술래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해야”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5일 “강강술래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남도의 큰 자산”이라며 “이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승해주고 대회를 정례화하는 등 보존 및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 국장 간담회를 하고 “강강술래가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지역의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겨우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다”면서 “매년 추석 한가위 이전에 초·중·고·대학생 등 종별로 강강술래 대회를 열어 전승에 힘쓰고 관광상품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강술래뿐만 아니라 진도 씻김굿 등 남도 고유의 전통 민속 발굴 보존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또 “장흥에 조성된 우드랜드 등 전남지역 일부 삼림욕 시설들이 아토피 등 각종 환경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며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 추진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도시민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선 “퇴적토로 형성된 강의 양 옆 둔치에 지자체마다 체육시설 등을 함으로써 강 폭이 좁아져 장마때마다 침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강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강 한쪽만 시설을 하고 다른 한쪽은 과감히 준설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개선토록 하라”고 독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J프로젝트 삼호지구 어떻게 개발되나

2025년까지 1조5천억원 투입 인구 1만명 자족 기업도시 조성

919만㎡ 부지 호텔·골프장·허브가든 등 건설

초송·송천지구는 농림부 딴지 개발 지지부진

◇삼호지구 개발계획도

전남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6개 개발 사업지구 가운데 한 곳인 삼호지구 개발계획안이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J프로젝트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003년 J프로젝트 밑그림이 그려진 뒤 6년 만에 첫 결실을 맺게 됐다.

또한, 구성지구도 지난 2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심의 의결돼 오는 10월 중 기도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됐던 J프로젝트 일부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삼호지구, 어떻게 개발되나? = 삼호지구는 4천 호의 주택에 인구 1만명이 거주하며 관광과 레저·문화·주거·산업·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적인 기업도시로 개발된다.

개발 컨셉트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365일 다양한 관광레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미래생활 체험도시의 조성이다.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일대 919만㎡의 부지에 호텔, 골프장, 허브가든, 테마휴양단지, 문화콘텐츠단지, 에너지발전단지, 스포츠R&D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도시 조성비 4천496억 원을 포함해 총 1조5천56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남도는 삼호지구가 연평균 15℃ 이상의 따뜻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어 사계절 레포츠가 가능하고, 무안국제공항과 목포 국제여객선 터미널,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과 연계할 수 있어 관광레저도시로서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호지구 건설단계에서는 3조9천800여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 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그리고 8천억 원의 소득유발효과와 1조6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삼호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레저(주)에는 전남도를 비롯한 에이스회원권거래소, 한국관광공사, 금호산업, 대림산업, 삼환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J프로젝트 개발 사업 어디까지 왔나? = 전남도의 최대 역점 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개발사업은 해남 산이면과 영암 삼호읍 일대 총 87.9㎢(2천660만 평)에 6개 사업지구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민자를 포함해 총 35조 원이 투입돼 5만 가구, 23만 명이 거주하는 복합관광도시로 조성된다. 사업지구는 ▲삼호(9.2㎢) ▲구성(21.9㎢) ▲삼포(4.3㎢) ▲초송(20.5㎢) ▲부동(16.6㎢) ▲송천(15.4㎢)지구 등 6곳이다. 이 중 영암군 삼호읍 일원 삼호지구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실 기업도시위원회(이하 기도위)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구성지구는 삼호지구와 함께 기도위 승인 전 단계인 중도위를 통과했으며, 현재 금융권 투자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달 말께 기도위 상정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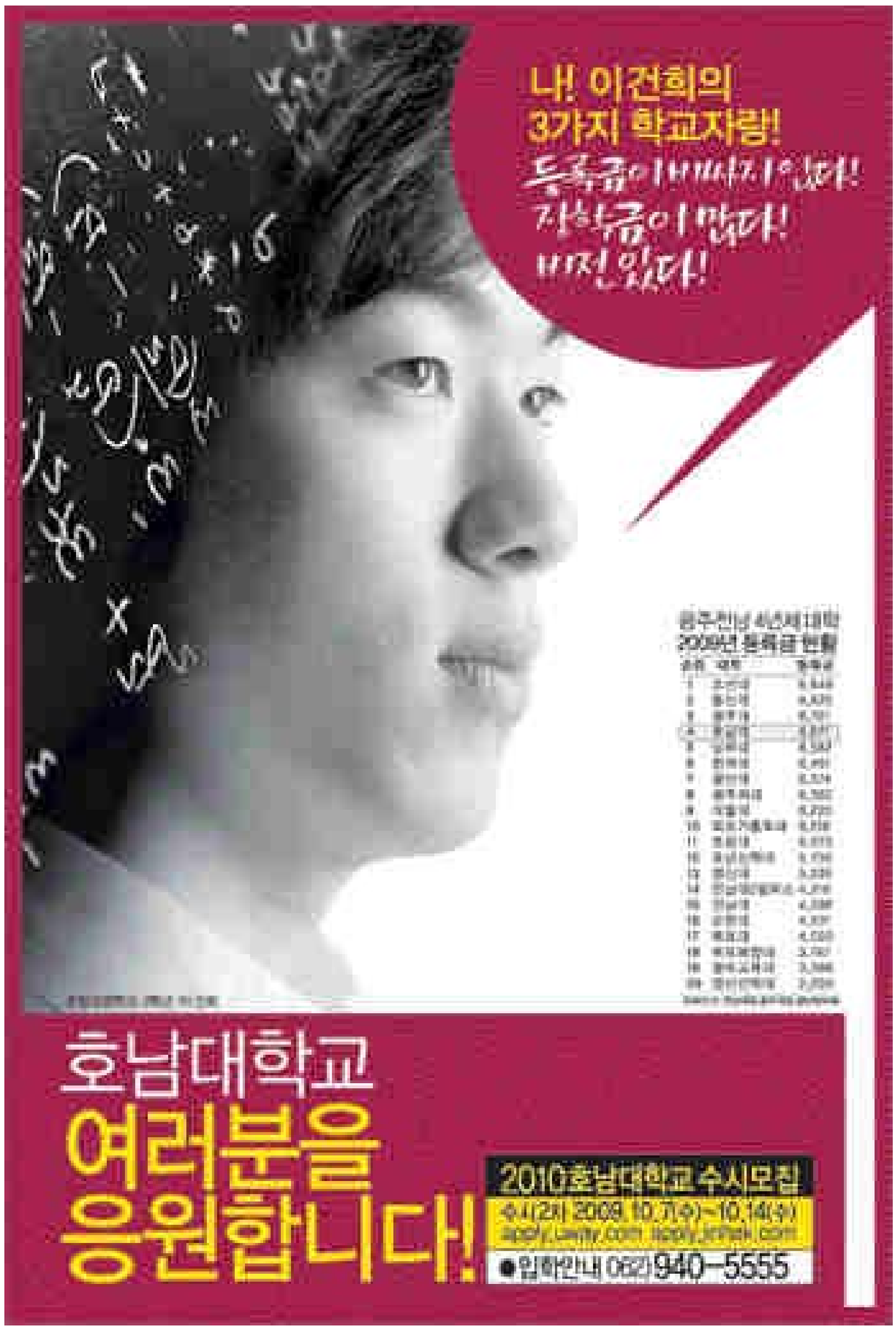
부동지구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개발계획이 승인 신청돼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부동지구는 초송지구 사업시행자였던 썬카운티(주)가 맡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개발계획안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최근 가장 난항이 예상됐던 환경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중도위 상정이 예상된다.

삼포지구는 포뮬러원(F1)대회 주최로 자체 추진 중이나 초송과 송천지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간척지 사용문제를 놓고 이견을 벌이고 있어 사업 진척이 더딘 편이다.

반면 사업예정지인 간척지 활용을 놓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이견을 보이는 초송·송천지구는 사업 진척이 더디다. 초송지구는 농식품부와의 간척지 양도양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썬카운티(주)가 사업지구를 부동지구로 옮겨버려 지금은 사업시행자조차 없는 상태다.

송천지구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미국과 대만 자본이 특급호텔 등을 짓겠다며 전남도와 45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9월 국내 개발전담법인까지 설립해 개발계획 수립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이곳에 대규모 온실단지 조성과 수출전문 농어업주식회사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농림식품부의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남도의 J 프로젝트는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낳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